

# 다니엘서 - 제139번

다니엘서 11장 40절과 현대 정치 현실의 예언적 대응: 마지막 대통령의 수수께끼를 풀어내기

Jeff Pippenger

2024-03-16

우리는 다니엘서 11장 40절이 같은 장의 1절과 2절과 어떻게 대응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1절은 종말의 때가 1989년임을 밝히며, 40절도 1989년을 종말의 때로 지목하는데, 이는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사건으로 상징되는 소련의 붕괴와 함께 나타난다.

2절은 1989년 이후의 여섯 번째 미국 대통령을 모든 대통령 가운데 가장 부유한 인물로 지목하며, 따라서 도널드 트럼프를 특정한다. 그 과정에서 트럼프가 그레시아 전체를 "격동시킬" 것이라고 밝히는데, 이는 3절의 알렉산더 대왕의 그레시아 제국을 가리킨다. 3절과 4절의 그리스 왕국은 다니엘서 11장의 전 세계적인 왕국의 상징이다.

윌리엄 밀러는 '역사와 예언은 서로 일치한다'라는 표현을 만들었고, 도널드 트럼프의 역사는 그가 미국의 지난 여덟 명의 대통령 가운데 가장 부유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글로벌리스트들, 나아가 전 세계가 도널드 트럼프를 증오하며 그 증오는 너무나 비논리적이어서 많은 이들이 그것을 광기로 규정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제공한다.

1989년부터 시작된 마지막 여덟 명의 대통령 가운데 첫 번째는 여러 면에서 트럼프를 분명히 예표했으며, 이에 따라 2절의 여섯 번째 대통령이 결국 여덟 번째이자 마지막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한다. 여덟 명의 연속에서 첫 번째인 레이건은 여덟 번째이자 마지막을 예표하게 되는데, 이는 예수께서 언제나 어떤 것의 끝을 그 시작으로 보여 주시기 때문이다.

1989년 종말의 때의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의 증언은 예언적으로 여덟 명의 대통령 가운데 마지막 대통령을 대표한다. 레이건 이후로 일곱 명의 대통령이 있을 것인데, 이는 곧 도래할 일요일법에서 미국이 성경 예언이 말하는 여섯째 왕국으로서의 역할을 끝내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일요일법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짐승의 형상을 세우게 되며, 그 짐승은 여덟째, 곧 일곱에 속한 자이다. 레이건은 1989년 종말의 때의 첫 번째 대통령이었고, 마지막은 여덟째, 곧 일곱에 속한 자가 될 것이다.

레이건은 1987년 6월 12일, 독일 서베를린의 베를린 장벽 근처 브란덴부르크 문에서 연설하면서 소련 공산당 서기장 미하일 고르바초프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 "고르바초프 서기장, 평화를 원한다면, 소련과 동유럽의 번영을 원한다면, 자유화를 원한다면: 이 문으로 오십시오! 고르바초프 씨, 이 문을 여십시오! 고르바초프 씨, 이 장벽을 허무십시오!" 지난 여덟 명의 대통령 중 첫 번째인 레이건의 가장 유명한 문구는, 그로부터 2년 뒤인 1989년 11월 9일 장벽이 허물어짐으로써 실현되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장벽을 허물라는 레이건의 강조는, 여섯째 대통령이 되기 위해 출마하던 당시 '장벽을 세우겠다'는 약속을 선거운동의 토대로 삼았던 여덟째 대통령에게 호소했다. 마지막 여덟 명의 대통령 중 첫째가 장벽을 허물라고 촉구했고, 끝의 때인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머지않아 다가올 일요일 법령 때에는 교회와 국가의 분리라는 '장벽'이 허물어질 것이며, 이는 1989년에 시작된 것으로 표상되었다. 그 기간의 중간에 글로벌리스트들을 자극하는 여섯째 대통령이 그들이 원하지 않는 장벽을 세우려 시도하고, 그가 다시금 일곱에 속한 여덟째 대통령이 될 때 또 다른 '장벽'이 무너질 것이다.

여덟 명의 대통령 가운데 첫째는 다니엘서 11장 40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종말의 때를 가리키던 벽의 붕괴로 표시되고, 마지막은 다니엘서 11장 41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14만 4천 명의 인침 기간의 끝을 가리키는 "벽"의 붕괴로 표시된다.

레이건 대통령은 과거 민주당원이었으나 공화당원으로 전향한 인물로, 방송 스타 출신이며, 명료한 연설로 알려졌고 깊은 유머 감각을 지닌, 워싱턴 DC의 기성 권력에 맞서 선거운동을 벌인 재정 보수주의자였다. 그러나 국가의 수도에 깊이 뿌리내린 기성 권력('높')에 맞선 그의 첫 선거운동에서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그때까지의 어느 현대 대통령보다도 더 높은 비율로 명백한 글로벌리스트 성향의 정치인들을 내각 직책에 임명했다. 그는 심지어 부통령으로 조지 부시 1세를 지명하기까지 했는데, 그는 가문의 뿌리가 글로벌리스트 역사로 한참 거슬러 올라가는 인물이었다.

트럼프는 자신이 "높"이라고 부른 기성 권력을 척결하겠다는 공약으로 선거운동을 벌였지만, 그가 가까이에서 함께 일할 인물로 선택한 사람들의 면면은 그의 가장 큰 약점을 드러냈다. 그들 대부분은 트럼프가 그토록 완강히 반대하는 "높"의 대표자들이었다. 트럼프는 레이건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원에서 공화당으로 전향했고, 미디어 스타 출신이며, 연설로 유명하고, 남다른 유머 감각을 지녔으며, 재정 보수주의자였다.

미국의 마지막 대통령은 교황권의 형상(짐승의 형상)이 미국에서 형성될 때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1989년 이후 여덟 번째이자 마지막 대통령은 용의 권세와의 전쟁에 관여하게 될 것이다. 이는 교황권이 538년에 용의 권세에 의해 처음 옹립되었고, 1798년에는 같은 용의 권세에 의해 폐위되었으며, 그들의 일곱째 왕국을 교황권에게 주기로 동의한 열 왕으로 대표되는 용의 권세에 의해 다시금 옹립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후 그들은 아무도 도와줄 자 없이 그녀가 그 끝에 이를 때, 그녀를 불로 태우고 그 살을 먹어치움으로써 그 교황권의 짐승을 폐위할 것이다.

여덟째가 될 대통령, 즉 일곱에 속하는 그 대통령은 또한 용의 세력과의 전쟁에 관여하게 될 것이다. 그 전쟁은 여섯째이자 가장 부유한 대통령이 세계주의적 용의 세력 전체를 뒤흔들 때 드러난다. 1989년부터의 마지막 여덟 명의 대통령 가운데 두 사람은 사망했으며, 따라서 용의 세력과의 전쟁에 관여할 수 있는 대통령은 여섯 명이 남아 있다.

그 여섯 명 중 네 명은 공공연히 용의 권세로 움직이는 글로벌리스트들이다. 여섯 명 중 한 사람은 아버지처럼 자신이 공화당원이라고 표방하지만, 그는 명목상의 공화당원일 뿐이며,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글로벌리스트 용의 세력을 대변한다. 생존해 있는 여섯 대통령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이 분명히 글로벌리스트가 아니며, 그가 바로

글로벌리스트들을 자극하는 대통령이다. 그는 최근 여덟 명의 대통령 중에서, 용의 세력과의 전쟁에 관여한다는 측면에서 교황권의 형상이라는 요소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다.

미국의 최초 공화당 대통령은 미국 남북전쟁과 관련하여 바로 이 사실을 다루는 성경 구절을 인용한 것으로 유명하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스스로 갈라진 나라는 모두 황폐하게 되고, 스스로 갈라진 모든 도시나 집도 서지 못한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면 그는 자기 자신과 갈라진 것이니, 그러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만일 벨제붓의 힘으로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너희 자녀들은 누구의 힘으로 그들을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마태복음 12:25-28.

그레시아의 영역을 뒤흔든 가장 부유한 대통령을 상대로 한 용의 전쟁은 도널드 트럼프와 글로벌리스트들 사이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 왜냐하면 다른 가능한 생존 대통령 다섯 명은 모두 반미 글로벌리스트들이기 때문이다. 링컨이 국가가 노예제 찬성파와 반대파의 두 진영으로 분열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이전의 구절들을 인용했을 때, 그는 노예제 찬성의 민주당원들과 노예제 반대의 공화당원들을 지칭하고 있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대표하고 이끄는 MAGA주의 운동으로 마지막 공화당 대통령이 선동하는, 글로벌리스트 민주당원들 사이의 마지막 날들의 전쟁을 다루고 있었던 것이다.

첫 공화당 대통령인 링컨은 마지막 공화당 대통령을 예표한다. 마지막 대통령은 또한 1989년 종말의 때의 공화당 대통령에 의해서도 예표된다. 이 두 증인은 자신들이 예표하는 대통령이 공화당 소속임을 밝힌다. 1989년 종말의 때의 공화당 대통령은 단순히 공화당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여덟 명의 대통령 가운데 첫 번째였다. 마지막 대통령은 또한 초대 대통령이자 최초의 최고통수권자인 조지 워싱턴에 의해서도 예표되었을 것이다.

워싱턴은 차례로 1776년으로 대표되는 시기의 초대 대통령에 의해 표상되었고, 그 초대 대통령(페이턴 랜돌프)은 일곱 사람이 대표하는 여덟 개의 시기 동안 재임한 일곱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랜돌프는 여덟 가운데 첫째였고, 따라서 여덟 가운데 첫째였던 레이건을 대표했으며, 레이건은 일곱에 속한 여덟째였다. 따라서 랜돌프는 워싱턴(초대 대통령), 링컨(초대 공화당 대통령), 레이건(마지막 여덟 가운데 첫 대통령), 그리고 1989년 이후의 여덟 번째 대통령—예언적 필연에 따라 일곱에 속한 여덟째가 될 자—을 대표했다.

워싱턴은 또한, 1789로 대표되는 역사에서 대통령이었고 랜돌프가 그랬던 것처럼 일곱에 속한 여덟째였던 존 핸콕에 의해 상징될 것이다. 랜돌프가 워싱턴을 상징했으므로, 핸콕이 일곱에 속한 여덟째로서 랜돌프와 일치할 때, 핸콕은 1989 이후의 여덟 번째 대통령을 대표하는데, 그 대통령은 예언적 필연에 따라 일곱에 속한 여덟째가 될 것이다.

랜돌프, 핸콕, 워싱턴, 링컨 그리고 레이건은 모두 마지막 대통령을 예표한다. 그중 두 증인은 마지막 대통령이 공화당원이 될 것임을 입증한다. 두 증인은 마지막 대통령이

여덟째, 곧 그 일곱에 속한 자가 될 것임을 입증한다. 1989년의 끝의 때 이후의 여덟 명의 대통령 가운데 생존해 있는 다섯 명은 오직 트럼프만이 용의 권세와의 전쟁에 참여할 정치 이념을 지니고 있음을 드러낸다.

링컨의 전임자는 민주당원인 제임스 뷰캐넌이었는데, 양심적인 역사학자들은 그를 미국 초기 역사에서 가장 무능한 대통령으로 지목하며, 그의 무능한 지도력은 사실상 미국 남북전쟁을 초래했다. 링컨이 취임 선서를 하기 전부터 남부 여러 주는 이미 연방 탈퇴를 시작했고, 링컨 취임 한 달 만에 첫 발포가 있었다. 뷰캐넌은 링컨이 어쩔 수 없이 수습해야 했던 전쟁을 불러온 움직임에 시동을 걸었다.

레이건의 전임자는 현대사에서 가장 무능한 대통령이었다. 민주당의 카터는 이란에 있는 급진 이슬람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미국의 체면을 구겼다.

트럼프 이전에는 민주당 소속의 오바마가 있었는데, 그는 문화적·정치적·경제적 분열을 의도적으로 촉발했으며 그 분열은 그때 이후로 더 커지기만 했다. 그의 무능한 리더십은 뷰캐넌과 카터가 보여준 전형에 해당했지만, 그가 집권하던 시기에는 주류 언론이 이미 아돌프 히틀러의 국민계몽선전성과 병행되는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오바마가 미국의 사회, 정치, 금융, 종교 제도를 공격한 사실은 보지 않으려는 이들에게는 은폐되었고,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선서한 사람으로서의 그의 무능함도 치밀하게 가려졌다. 오바마는 이란에 기반을 둔 급진 이슬람을 제대로 다루지 못해 미국을 난처하게 만들었다.

2024년에 트럼프가 1989년 레이건 퇴임 이후 여덟 번째 대통령으로 재선되면, 그는 다시 한 번 글로벌리스트이자 용의 힘을 등에 업은 민주당원 뒤를 이어 집권하게 될 텐데, 그 민주당원은 이제 역사상 가장 무능한 대통령이라는 왕관을 썼고, 이란에 기반한 급진 이슬람에 대처하려는 시도에서 거듭 미국의 망신을 사왔다. 그럼에도 현대의 주류 언론(라이히 공공계몽 및 선전부로 상징되는)은 그 분명한 현실을 다시금 물어버리려 애쓴다.

레이건이 취임했을 때, 이란에서의 급진 이슬람과 관련된 위기는 민주당 대통령에 의해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레이건은 즉시 이란으로 대표되는 급진 이슬람과 미국 사이의 긴장 국면을 반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트럼프가 취임했을 때에도, 다시 이란에서의 급진 이슬람과 관련된 위기는 해결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민주당 대통령에 의해 재정적으로 지원까지 받고 있었다. 트럼프는 즉시 이란으로 대표되는 급진 이슬람과 미국 사이의 긴장을 반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현 민주당 대통령은 트럼프가 이루어낸 모든 진전을 뒤집었고, 효과적이지 못한 바이든의 지도력 때문에 이제 전 세계가 제3차 세계대전에 휘말려 들어가고 있다.

그것은 카터의 무능으로 드러난 이슬람 관련 행보와 오바마의 이슬람 장려로만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공화당 대통령이 해결해야 했던 전쟁을 시작한 뷰캐넌의 행위로도 구현된다.

최초의 공화당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트럼프는 2020년 선거에서 글로벌리스트 용의 세력들에 의해 정치적으로 살해당했다. 그가 거리에서 죽은 것으로 여겨지는 동안, 요한계시록 11장에 예언된 대로, 땅의 짐승에 속한 글로벌리스트들과 전 세계의

글로벌리스트들이 기뻐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그들의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이다. 그들의 시체는 그 큰 성의 거리에 놓일 것인데, 그 성은 영적으로 소돔과 애굽이라 불리며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백성과 족속과 언어와 나라에 속한 자들이 삼일 반 동안 그들의 시체를 보고, 그들의 시체가 무덤에 묻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땅에 사는 자들은 그들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에게 선물을 보낼 것이니, 이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삼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영이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일어서니, 그들을 보는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였다. 요한계시록 11:7-11.

이제 2024년에 들어섰고, 트럼프는 굳건히 서 있으며, 2021년 1월 6일부터 기뻐하며 흥청대던 용의 세계는 이제 '큰 두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주류 언론(MSM)은 패닉에 빠졌다. 그들 스스로 내세우는 논지에서도, 옛 록앤롤 노래에서 말하듯 '그들이 왕으로 뽑아 놓은 그 지친 늙은이'가 트럼프의 지지율에 충분히 근접한 수준으로 유지해 그들의 투표 기계가 바이든을 결정적으로 앞서게 밀어 올릴 수 있게 만들 능력이 없다는 우려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주류 언론은 지금 히틀러 시절의 라이히 국민계몽선전부 못지않게 선전 기계다.

이 사실은 수학적으로 달리될 가능성이 전무하다고 할 만큼 거듭 입증되어 왔다. 새로운 글로벌리스트의 화두가 사회 전반에 등장할 때마다, 용의 선전 기계가 지배하는 각종 소통 채널이 이 사건이든 저 사안이든 그것을 설명하면서 한마디도 틀리지 않은 동일한 문구를 그대로 내놓는다는 사실이 거듭 기록되어 왔다.

여러분 가운데 옛날 아이들 놀이인 "전화 게임", 또는 때로는 "중국인 속삭임"이라 불리는 놀이를 아는 분이려면, 사람들이 원을 이루어 앉아 게임이 진행되면서 첫 번째 사람이 옆 사람의 귀에 속삭이고, 그 속삭임이 원을 따라 반복되어 전해질 때, 처음의 속삭임은 원을 도는 동안 어김없이 처음과는 다른 것으로 변해 버린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류 언론은 그 추종자들에게, 이 나라와 전 세계의 모든 기자가 어떤 주제나 사건에 대해 용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어떻게든 똑같은 단어와 표현을 선택한다고 믿기를 바랍니다. 수백 명의 이른바 기자들이 같은 사건을 보고서 똑같은 결론에 이를 뿐 아니라, 그 사건을 묘사하는 데도 동일한 단어와 표현을 골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글로벌리스트들의 선전 기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의 하나의 예언적 특징을 식별하는 일일 뿐이다. 그리스도의 때에 유대인들은 결국 그들의 메시아를 거절하면서 공개적으로 가이사를 자신들의 왕으로 선택했다. 그 논란이 많은 시기에 대제사장은 그리스도를 살해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는데, 그것은 사탄적이었고 잘못된 추론에 근거했지만 동시에 옳기도 했다.

그들 중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고 온 민족이 멸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는도다. 그는 이 말을 스스로 한 것이 아니었으니,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으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라. 그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시려 함이라. 요한복음 11:49-52.

가야바는 그리스도를 공격하기 위한 논리를 꾸며냈고, 그러는 가운데 실제로는 타당한 예언을 하고 있었다. 그는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어야 한다고 믿지 않았고, 단지 그분을 죽이려 했을 뿐이다. 용의 권세에 속한 주류 언론은 지금 트럼프에 대해서도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 그들은 트럼프가 재선되면 아돌프 히틀러처럼 독재자가 될 것이라고 대중에게 두려움을 주입하려 하고 있다. 민주당은 친노예제 정당이며, 독일만이 아닌 전 세계적인 선전 기계를 포함해 나치당의 특징을 지니고 있지만, 트럼프가 당선되면 민주주의가 전복되고 트럼프가 아돌프 히틀러 같은 독재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미국의 마지막 대통령에 관해 지적하는 바이지만, 주류 언론은 용에게 영감을 받은 가야바처럼 자신들이 되풀이하는 주장들이 예언적이며 실제로 성취될 것임을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나라는 위기에 처해 있다. 그 입법자들이 개신교의 원칙을 그토록 저버려 로마적 배교를 용인하게 될 때가 다가오고 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어 그들에게 가혹한 교황주의의 멍에를 벗어 던질 힘을 주셨던 바로 그 백성이, 국가적 조치로 로마의 부패한 신앙에 힘을 실어 주어, 한 번의 자극만 있으면 다시금 잔혹과 전제정치로 치닫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폭정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빠른 걸음으로 이 시기에 다가가고 있다. 예언의 영, 제4권, 410쪽.

미국 민주당의 부패한 요소들과, 사실은 세계주의자이면서 자칭 공화당원인 이들, 그리고 전 세계의 진보적 세계주의자들을 내가 지적하다 보면, 독자들이 내가 공화당이나 도널드 트럼프에게 어떤 형태로든 정치적 동조를 가지고 있다고 믿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이는 사실과는 전혀 다르다. 마지막 대통령은 주류 언론의 예측대로 독재자가 될 것이지만, 그들 역시 자신들이 실제로 무엇을 예측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가야바가 알았던 것 이상으로 알지 못한다. 우리는 에스겔의 "바퀴 안의 바퀴"로 표현된 "인간 사건들의 복잡한 상호작용"과 관련된 예언적 역학관계를 단지 식별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